# 드라마 「임계점 (Critical Point)」 제2부 대본 (가편)

## \*등장인물 (2부 등장 기준)

* **백도진 (40대 중반):** 영등포서 형사2과장
* **김민준 (30대 초반):** 마약수사 2팀 경위
* **박태수 (40대 중반):** 영등포서 형사 1과장
* **한서우 (30대 초반):**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 **한정섭, 박순애 (60대):** 한서우의 부모, <엄마손 국밥> 주인
* **김강호 (60대 중반):** 대통령
* **윤세은 (50대 초반):** 영부인
* **강석훈 (40대 후반):** 대통령 비서실장
* **황덕훈 (50대 초반):** 법무부장관
* **최철규 (40대 중반):** 영등포서 마약수사 1팀장
* **김창석 (50대):** 영등포 경찰서장
* **독사 (40대 중반):** 백도진의 정보원
* **리화 (20대):** 조선족 여성, 최초 제보자
* **민안 (30대):** 윤세은 수행비서
* **전상준 (40대 초반):** 탐사보도 유튜버
* **김광호 (60대 초반):** 서울경찰청장
* **순경, 형사들, 마약 판매 조직원들**

'범죄의 시작(오프닝) → 정치적 배경(타이틀) → 사건의 발단(리화의 제보) → 수사 및 갈등(인물 관계 빌드업) → 대규모 검거(카타르시스) → 충격적 반전(클리프행어)'으로 이어지는 5막 구조

## ****제2부 대본 (오프닝 시퀀스)****

### ****# S#01. 인천세관, 감시 센터****

(타이핑 소리) 자막: 2023년 2월 4일

**어두운 관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인다.**

**한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인다. 화면에는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이 떠 있다.**

**\*\*화면 하단 자막\*\*  
[사전승객정보시스템 (APIS):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를 출입국관리당국에 사전에 알려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

**그는 방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송된 특정 항공편의 탑승객 명단을 띄운다. 그리고 그 중 몇 개의 이름을 하이라이트 표시하더니, 망설임 없이 'DELETE' 키를 누른다.**

**화면에 [해당 승객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창이 뜨고, 그는 '예'를 클릭한다.**

****# S#02. 인천세관, 감시 센터 (같은 시각)****

(타이핑 소리) 자막: 2023년 2월 5일

**\*\*문지영(26세/여, 인천세관 신입여직원)\*\*이 자신의 책상에서 업무 중이다. 화면에는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이 떠 있다. 누군가 말레이시아 발 항공편 탑승객 중 우범자 명단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포착한다.**

****문지영****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책상 위 서류와 아피스 화면을 번갈아 본다.)**

**어? 뭐지? 이 명단...에 분명히 있는 이름인데...**

**(다시 한 번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며, 키보드 위로 빠르게 손을 움직인다.)**

**그녀는 방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송된 특정 항공편의 탑승객 명단을 띄워 우범자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한다.**

**화면에 [해당 승객 정보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창이 뜨고, 그녀는 '예'를 클릭한다.**

### ****# S#03.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사무실****

**마약조사2과 직원들이 칸막이로 나뉘어진 사무실의 각자 자리에서 업무 중이다.**

**그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발 항공편이 도착하고, 마약 소지 의심자 1명이 특정되어 경고 메시지가 뜬다. 마약 소지 의심자의 신원과 사진이 열린다.**

**마약조사2과 반장 임영택, 계장 이인홍은 마약조사2과 조사관 두 명과 함께 해당 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해 입국장으로 급히 이동한다.**

임영택

**(무전기에 대고)**

**마약조과2과 임영택 반장입니다. 입국장으로 마약탐지견 보내주세요.**

### ****# S#04.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엑스레이 검색대****

**마약 소지 의심자가 입국장으로 들어선다.**

**조사관 1은 그의 얼굴을 확인한다.**

**조사관 2가 그에게 다가가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화면] 컨베이어벨트 위 화물 엑스레이 분석 모습**

**검색요원1 이 화면을 주시하다 이상물질을 발견한다.**

**[화면] 엑스레이로 주시된 짐들**

**마약조사과 직원들이 그에게 다가가 몸수색과 가방을 조사한다.**

**몸에 테이프로 부착한 필로폰이 발견된다.**

**가방 안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늘어놓고 마약 탐지견을 투입한다. 마약 탐지견이 물건들의 냄새를 맡으며 오가다가 빈 가방 앞에 앉는다. 가방 밑바닥에 부착한 필로폰이 발견된다.**

**안인홍**

**(조사관들에게)**

**키트 검사 좀 해봐!**

**조사관1,2가 마약 검출 시약과 필로폰을 마약검사 용기에 넣어 검사를 실시한다.**

**[화면] 마약 검사 용기 클로즈업, 투명한 시약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안인홍**

**(심각한 표정으로)**

**메스암페타민 맞습니다.**

임영택

**(조사관들에게)**

**필로폰이네?**

**임영택은 조사총괄과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총괄과는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보고한다.**

***타이틀 <임계점>***

## ****제2부 대본 (타이틀 시퀀스)****

### ****# S#05. 타이틀 시퀀스 - 몽타주 (여러 장소, 낮/밤)****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아래의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스치며 교차된다.

* **TV 뉴스 화면 1: 앵커의 모습과 뉴스의 주요 내용 자막.**

**1. [6.25] ‘민주주의의 위기’ 야당, ‘언론 탄압’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

**2. [7.6]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윤세은 일가 특혜 의혹 확산**

**3. [7.19]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고 차승관 상병) 발생**

**4. [7.21]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정부의 대책 방안 시급**

* **TV 뉴스 화면 2: 분석적인 톤의 기자 리포트.**

기자 **(V.O.)**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TV 뉴스 속보 자막:**

**[속보] 민주화합당 신대현 대표, 당선 후 5번째 검찰 소환 조사**

**검찰청사 앞,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신대현 대표**

신대현

**(결연한 표정과 말투로)**

**정치검찰의 비열한 공작수사에 맞서,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시사 주간지 커버스토리:**

**김강호 대통령과 황덕훈 장관의 사진 위로, 정적(政敵)을 향한 칼날, 검찰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이 박힌다.**

**영등포 경찰서의 야경으로 포커스 인 된다.**

**(FADE OUT)**

## 제2부 대본 (발단 시퀀스)

### ****# S#06.**** 영등포의 한 허름한 모텔 방 (밤)

허름하고 좁은 방. 마약에 절어 동공이 풀린 \*\*리화(20대)\*\*가 공포에 떨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리화

(조선족 억양으로, 떨리는 목소리)

...오빠, 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남자의 거친 욕설이 들려온다. 리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꺼낸다.

메모지에는 \*\*[영등포서 형사1과장 박태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그 메모지를 꽉 쥔다.

### ****# S#07. 영등포 경찰서, 외경 (낮)****

(타이핑 소리) 자막: 2023년 7월 10일

쨍쨍 내리쬐는 여름 햇살.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린다.

다소 캐주얼한 옷차림에 썬글래스 낀 최하나(신임 수사과장)이 캐리어를 끌고,

영등포경찰서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다.

(카메라) 분주한 영등포 경찰서 외관에서 시작해, 마치 유령처럼 유리문을 통과하듯

내부 로비로 글라이딩.

### ****# S#08. 경찰서 로비 및 복도 (낮)****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민원인들로 북적이는 로비를 지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복도를 따라 빠르게 무빙(MOVING)한다.

벽에는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안전' 같은 낡은 표어들이 붙어있다.

(카메라) 복도 끝에 있는 [형사1과] 팻말을 지나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 ****# S#09. 형사1과 사무실 (낮)****

전쟁터가 따로 없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형사들,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욕설과 한숨이 뒤섞여 있다.

(카메라) 이 모든 분주함을 뒤로하고 사무실 입구 쪽을 비춘다.

[형사1과] 팻말 아래, \*\*리화(20대)\*\*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다.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한다.

그때, 제복을 입은 젊은 **순경(여준호)**이 그녀에게 다가온다.

**순경**(여준호)

어떻게 오셨습니까?

**리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 박태수 형사님 좀...

**(화면 전환 CUT TO:)**

### ****# S#10. 조사실 (낮)****

좁고 답답한 조사실.

한쪽에는 백도진이 팔짱을 낀 채, 의심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상대를 보고 있다.

그의 맞은편에, 리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다.

그녀는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잠시 흐르는 침묵. 백도진이 먼저 깨뜨릴 법도 한데, 그는 그저 기다린다.

마침내, 리화가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리화**

(힘겹게)

...마약을... 끊고 싶슴다.

**백도진**

(건조하게)

마약을 끊고 싶다... 자수하러 오신 거에요?

**리화**

(다급히)

네... 근데... 너무 무섭슴다. (흐느낀다.)

**백도진**

(눈도 맞추지 않고 서류를 보며)

무섭다... 근데 마약 같은 거 할 땐 안 무서웠어요?

**리화**

(놀라며)

예?

**백도진**

(그제야 리화를 쳐다보며)

세상엔 무서운 게 참 많은데... 나는 있잖아, 마약이 제일 무섭더라고! 일단 약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엔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약의 노예가 되는 거지.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했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질 않거든. 점점 자주, 점점

많은 약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도 안 쉬고 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구? 뭘 어떻게 돼? 그 때부터는 약값이 감당이 안되니까 약을

팔아야지! 마약 판매책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봐, 난! 혹시 약 팔았어요?

**리화**

(흐느껴 울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님다. 저는 그냥 심부름으로 배달만 했슴다. 정말임다.

**백도진**

(시큰둥하게, 모니터를 보며)

그럼 일단 자수를 하시고, 초범에 자수면 대개 집행유예 나오니까 바로 치료센터로...

**리화**

(눈물을 닦으며)

제발 살려 주시라요. 약을 끊으믄 죽이겠다고 했단 말임다. 그 놈들이...

(고개를 떨구고 서럽게 운다)

**백도진**

(손을 멈추고 리화를 본다)

협박을 받았어요?

**리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든다)

제발 도와 주시라요.

제가 약 들어오는 날짜랑 약 보관하는 장소랑 다 알아낼 수 있음다.

정말임다.

리화의 절박한 목소리가 조사실의 공기를 가른다.

백도진, 팔짱을 풀고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난다.

\*\*시간경과\*\* (화면 전환) 작성된 조서를 출력하느라 프린터 앞에 서서 기다리는 백도진

(S.E) 문서 출력되는 소리

**백도진**

(출력된 문서를 집어 들며 혼잣말로)

근데... 어떻게 태수를 알고 찾아왔지?

리화가 박태수의 이름을 대며 찾아온 것에 대해 잠시 의문을 갖는 백도진.

**(FADE OUT)**

****# S#11. 영등포 경찰서, 복도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의 분주함이 가라앉은 한산한 복도.

백도진과 박태수가 나란히 서장실을 향해 걷고 있다. 보고서를 본 박태수의 얼굴은 상기된다.

**박태수**

(보고서를 훑어보며)

...근데...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제보야?

**백도진**

(표정 변화 없이)

마약 중독자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박태수**

(걱정스러운 듯)

근데 왜?

**백도진**

(옅게 미소 지으며)

...확인은 해 봐야지. 확인은! 마약을 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잖아.

**박태수**

(이해가 안된다는 듯)

내가? 내가 왜? 야, 이거 우리 과랑 관계없는 사건이고, 제보도 네가 받았잖아…

**백도진**

(계속 걸으며 돌아보지 않은 채)

어제 네가 없어서 내가 대신 받은 거지.

**박태수**

(어이없다는 듯한 손은 허리에 올리고 나머지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아니, 이거 보세요, 백과장님! 제가 제보를 받았어도 어차피 마약 제보니까 형사2과로 넘어 가잖아요.

**백도진**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

그러니까! 수사는 우리가 한다니까? 보고만 박과장이 하시면 됩니다.

(뭔가 떠올랐다는 듯 검지로 머리를 톡톡 치며)

아참! 그런데 말이야… 어제 그 제보자가 어떻게 박태수 형사님을 콕 짚어서 제보를 하러 온 건지…

참~ 이상하단 말이지? 너 진짜 그 여자 몰라? 진짜?

**박태수**

(백도진 쪽으로 걸어가며)

몰라! 진짜 몰라! 나도 궁금해 죽겠어.

백도진은 박태수를 놀리는 듯 고개를 연신 갸우뚱거리며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간다.

박태수는 백도진의 뒤를 마지 못해 따라 가며, 앙탈부리듯 발을 쿵쿵 구르며 걷는다.

두 사람, 서장실 문 앞에 도착한다.

백도진이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큰소리가 들린다.

김창석 (V.O.)

미국FBI연수! 이야~우리 영등포서에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재가 왔어? 하하하하!

최하나 (V.O.)

이력은 이력일 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석** (V.O.)

그래, 그래요. 최하나 과장! 기대가 큽니다.

최하나 (V.O.)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 주세요, 서장님! 하하하하.

**김창석** (V.O.)

하하하하! 그래요, 그래! 같은 말도 참 듣기 좋게 하는 재주가 있네~ 하하하하!

최하나 (V.O.)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왔거든요.

**김창석** (V.O.)

어어~ 그래요. 출근하면 그 때 정식으로 소개하면 되니까! 얼른 가서 짐도 풀고, 여독도 풀고 해야지.

최하나 (V.O.)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겠습니다.

**김창석** (V.O.)

어어~!! 어서 들어가요, 어서!

서장실에서 나오는 최하나와 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백도진, 박태수가 마주친다.

최하나는 미소 띤 표정으로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본 후 가볍게 목례하고는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간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누구야?’라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를 한다.

### ****# S#11. 서장실 (아침)****

\*\*김창석 서장(50대)\*\*이 막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젓고 있다. 그는 소파에 앉으라는 듯 턱짓한다.

박태수가 먼저 소파에 앉으며 간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 백도진은 박태수 맞은편에 앉는다.

**김창석**

(소파에 앉아 등을 대고 목을 뒤로 젖히며)

아유~ 뒷골이야. 이 놈의 고혈압!

**박태수**

(어색한 말투로 아부하듯)

아~니~, 대체 누가 우리 서장님 혈압을 올린 겁니꽈? 혹시 좀 전에 나간 그 여자?

**김창석**

(싫지 않은 표정으로 핀잔을 주듯 박태수와 백도진을 차례로 가리키며)

너! 얘! 내 고혈압의 원흉같은 놈들이, 참 나!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니고, 우리 서 신임 수사과장!

**박태수**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아~… 신임 수사과장이구나? 여자 수사과장!! 이야~

**김창석**

(백도진을 노려보며)

아참, 백과장! 마약팀 어뜨케 안돼?

**백도진**

(곤란한 듯 테이블 위 보고서를 만지작거린다.)

**박태수**

(얼른 주제를 전환한다)

아니, 근데… 그 신임 수사과장이…

(서장의 눈치를 살핀다)

제가 알 필요가 없죠. 암요! 없구말구요.

**김창석**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치켜 뜨고 박태수를 본다.)

용간 몰라? 용건만 간단히!

**박태수**

(무릎을 모으고,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위에 올리고)

아… 용간이 그… 죄송합니다~ 서장님! 어제 들어온 마약 제보 건입니다.

**김창석**

(짜증난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다.)

마약제보? 그거야 늘상 있는 일인데 왜 갑자기 각 잡고 그러는데?

백도진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몸을 일으켜 김창석 서장 쪽으로 몸을 기울여 관심을 끌려는 듯 이야기를 시작한다.

**백도진**

스읍~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20대 조선족 여자애가 절, 아니 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뜸을 들인다.)

**김창석**

(상황 파악이 안되는 듯 눈을 치켜 떴다가 눈동자를 한 바퀴 돌린다.)

조선족이? 박과장을?

**백도진**

스읍~ 박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일단 만났어요. 그런데...

(뜸을 들이며 서장의 눈치를 살핀다.)

얘가 막~ 우는 거야!

(리화의 흉내를 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거린다)

이르케, 막 이르케~ 흑흑!

**박태수**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말아 넣어 입을 앙 닫고, 눈을 꾹 감는다)

**김창석**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울어? 갑자기? 왜애~?

**백도진**

(고민이 된다는 듯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쌌다가 갑자기 들면서)

하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서장님! 얘를 콕 집어서 찾아왔는데, 내 앞에서 여자가 막 울어!

하도 이상해서 내가 그 여자 얼굴을 자세~히 봤다니까?

**김창석**

왜 자세~히 봤는데?

**백도진**

(서장의 눈을 피하듯 턱으로 박태수를 가리키며)

아니, 저는 또 박과장이랑 어떤, 뭐 그런 관계가 있는 여잔가~ 한 거죠… 박과장 주변 여자들은 제가

다 알잖아요. 몇 명 안되니까!

**박태수**

(서장의 시야를 피해 백도진에게 표정으로 욕한다.)

**김창석**

(박태수를 휙 쳐다본다.)

박과장! 너 뭐 켕기는 거 있냐?

**박태수**

(억울한 표정으로 손사레를 친다.)

**김창석**

(궁금해서 안달이 난 표정으로)

아니 근데, 왜 울었냐고? 왜애~?

**백도진**

*(결심했다는 듯 서장을 보며)*

제발 도와 달라고, 막~ 살려 달라고 그러면서 우는데,

(말을 딱 끊고 곤란하다는 듯)

하아~ 이거 서장님 들으시면 또 놀래실텐데...

**김창석**

(약간 놀란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왜? 왜? 내가 아는 여자야?

**박태수**

(백도진에게 눈치를 주며 눈을 깜빡깜빡하고, 서장을 보며 어색한 말투로)

에이~! 서장님은 맨날 속으시면서 또, 또 백과장한테 낚이신다!!

**백도진**

(두 손을 짝 마주치며, 고개를 숙이고)

아~ 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김창석**

(긴장하며 눈을 크게 뜨고 소파 끄트머리에 걸터앉는다)

**박태수**

(한 손을 펴서 목을 긋는 시늉하며, 그만하고 자르라는 신호를 한다)

**김창석**

(백도진 쪽으로 몸을 바싹 기울이고, 침을 꿀꺽 삼킨다)

왜~? 뭐 내용이 좀 쎄?

**백도진**

(소파에 기대 앉으며 멋쩍은 듯 서장의 시선을 피해 손을 만지작거린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만 끊고 싶다 그러더라구요.

**김창석**

(백도진 쪽으로 몸을 더 바싹 기울이고)

뭘? 연락을?

백도진

(뜸을 들이며 서장을 애태운다.)

아니… 그, 저… 마약을…요

김창석 서장, 긴장하며 듣다가 맥이 탁 풀린 듯 짜증을 낸다.

**김창석**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백도진에게 던지며)

이걸 확~ 그냥!! 재밌냐? 재밌어?

(안도한 듯 소파에 다시 등을 기대 앉으며)

난 또 뭔 얘긴가 했네~

**박태수**

(웃음을 겨우 참으며)

저는 분명히 낚이시지 말라고 경고해 드렸습니다~

**백도진**

(서장의 눈치를 보며)

중국 마약 조직 판매책들 같은데, 걔들이 약 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했대요.

**김창석**

(백도진을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박태수**

(웃음기를 빼고 업무모드로 정색하며)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제보자 보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도진**

(진지한 표정으로)

일단 제보자가 말한 장소 근처에서 탐문 좀 해보구요, 한 일주일 잠복하면 걔들 동선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실적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백도진의 단호한 태도에, 김창석 서장의 표정도 살짝 진지 해진다.

**김창석**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좋아. 마약팀 데리고 해봐.

**백도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 마약…팀… 근데 최철규 팀장이…

**김창석**

(눈을 희번덕거리며)

됐고! 마약팀 데리고 수사진행 해. 대신 성과 없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어!

**백도진**

(마지못해 작은 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

(다시 약이 올라 못 참겠다는 듯 소리치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데?

김창석은 백도진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백도진은 두 팔로 머리를 가리고, 박태수는 서장을 말린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동료애와 신뢰의 공기. 하지만

[BGM]무언가 모를 불길한 긴장감이 감도는 음악.

**(FADE OUT)**

### ****#**** S#12.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실 (저녁)

백도진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인다. 그러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모니터화면] 차수정이 제출한 최성욱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때, 문이 열리고 **박태수**가 들어선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다.

백도진

(박태수를 휙 쳐다보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고정한다)

휴가간 거 아니었어?

박태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백도진의 책상에 올려 놓으며 덤덤한 표정으로)

...최성욱 압색영장, 반려됐다.

백도진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표정이 사라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태수를 쳐다본다.

백도진

...뭐?

박태수

(백도진의 책상에 올려 놓은 서류를 다시 집었다 던지듯 내려놓으며)

남부지검 형사3부. 반려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백도진

(서류와 박태수를 번갈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다)

뭐? 소명 부족? 지 마누라가 직접 찍은 영상에, 마약 공급책까지 특정했는데, 소명이 부족해?

박태수

(지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백도진

(박태수의 말이 거슬렸다는 듯 까칠하게)

나 감정적인 거 여태 몰랐어? 소명 부족? 하! 소명 부족?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서류를 휙 집어 들며)

영장 반려한 담당검사가 어떤 놈이야, 대체?

박태수

(서류를 빼앗아 다시 책상에 내려 놓으며 강한 어조로)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 내가 전에 남부지검 부장검사한테 전화 왔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

백도진

(박태수의 행동과 말투에 살짝 당황한 듯 뚝딱거리며)

그, 뭐! 그, 그, 김 뭐시기?

박태수

(백도진의 앞 자리 의자에 앉으며 등을 기댄다)

…그래 김성규 부장검사! 내가 그랬지?

부장이 움직였는데 어떤 검사가 영상 내 주겠냐고!

백과장~ 삼장법사 빽보다 부장검사 빽이 쎈 거 인정하자.

백도진

(화가 나지만 박태수의 반응이 낯설어 오락가락한다)

그, 그, 김 뭐시기가 최성욱 빽이라 이거야?

하! 나, 참… 부장검사 빽 없는 놈 서러워서 살겠냐?

박태수

(의자에 기댄 채 한 판을 얼굴에 올려 놓고)

…근데… 진짜 빽은 따로 있드라! 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진석!

‘이진석’. 그 이름을 듣고 거대한 벽과 마주한 자의 분노가 백도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다.

백도진

(나지막이, 거의 으르렁거리듯)

… 그래서.

박태수

(몸을 일으켜 세우며)

… 그래서 안된다는 거야. 이건 애초에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제발 상황 파악 좀 하고, 말 좀 들어!

백도진

(서류를 움켜쥐며 부들부들 떨며 언성이 점점 높아진다.)

… 그럼…, 이걸 그냥 덮어? 약쟁이 새끼가 머리 탈색하고 온 몸의 털을 싹 밀고 와서는, 눈앞에서

우릴 조롱하는데, 그냥 놔두라고?

박태수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린다)

그럼 어쩔 건데! 부장검사랑 맞짱이라도 뜨시게? 너야, 입버릇처럼 너 하나 옷 벗는 건 상관없다

그러지? 근데, 네 밑에 있는 팀장들도 그래?! 같이 옷 벗어도 괜찮대?! 드럽고 치사한 꼴 참은 걸로

치면, 네가 날 이겨? 경찰 월급으로는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해. 그래도 어떡할 거냐고! 배운 게

도둑질인데?

(고개를 얼른 젓고)

아니 형사질인데?

박태수의 절박한 외침. 그의 눈에는 친구에 대한 걱정과,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뒤엉켜 있다.

백도진, 그렁그렁한 친구의 눈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흐른다.

박태수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화 내서 미안하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나... 내일부터 휴가 들어가는 거 알지?

정후 수술 날짜 잡혔어.

백도진, 눈빛이 미안함으로 흔들린다.

백도진

(진심으로 미안해서 얼굴을 쓸어내리며)

아! 정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다.

백도진, 책상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돌아서 나가려는 박태수의 손에 쥐여준다.

박태수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야, 이게 뭐야?

백도진

정후 용돈. ...야, 삼촌이 용돈 못 준지 쫌 됐잖아. 그 녀석, 다행히 아빠 안 닮아서 씩씩하잖냐?

우리, 정후 믿자.

박태수, 돈 봉투를 쥔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백도진, 박태수의 등을 두드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 나가는 박태수를 백도진이 문 밖까지 따라간다.

(화면 전환)

홀로 남은 백도진. 그는 책상 위의 자신이 구겨 놓은 영장 반려 사유서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본다.

박태수(V.O.)

진짜 빽은 따로 있드라! 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진석!

백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한다.

백도진

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진…석…

(모니터 화면)

(이진석 부장검사의 사진)과 기사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진석은 누구?

김강호 사단인 황덕한 법무부장관이 발령한 이진석 부장검사는 오랜 ‘김강호 라인’

김강호, 2015년 대구 고검 좌천 당시 술동무였던 핵심 라인

(화면 암전 CUT TO:)

### ****#**** S#13. 작가 아카데미, 휴게실 (낮)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아카데미 휴게실.

**한서우**가 동료 수강생 \*\*미진(20대 후반)\*\*과 함께 텀블러에 물을 받고 있다. 미진은 전상준이 다녀간 후로 웃음이 줄었다.

한서우

(미진의 표정을 살피며)

...미진아,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그 때, 그… 사람 때문?

미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우 언니! 나…

한서우

(미진을 끌어 의자에 앉히면서)

...응, 그래. 일단 좀 앉자. 괜찮으니까 뭐든, 편하게 얘기해.

미진

(텀블러를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실은 나… 뭐랄까? 마음이 좀…

한서우

(미진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그래, 너 요 며칠 좀 그래 보였어.

미진

(한서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연다)

...전상준… 기자님,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야. 대책 없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한서우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듯)

...대책 없이 대단한… 그게 무슨 뜻인데?

미진

(창 밖을 응시하며)

지금이야 뭐, 1인 방송하는 시시한 유튜버처럼 보이지만, 한 때는 버젓한 독립언론사 대표였어.

한서우

(놀라며)

정말? 그렇다기엔 지금은… 뭐랄까? 좀 찌그러진 느낌이랄까? 그렇게 보이던데, 내 눈에는…

미진

(한서우를 보며)

지금이야 저렇게 찌그러져서 혼자 유튜브나 하고 있지만, 원래는 ‘더 스피릿’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겁 없는 독립언론사를 만든 사람이야. 나… 거기서 막내 작가로 일 시작했었거든.

미진,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한 표정을 짓는다.

미진

(미소 지으며)

괴팍하고, 지독하고, 잠도 안 재우고... 근데, 멋있었어. 돈 없고 빽 없어도, ‘진실’ 하나만 가지고

노빠꾸로 세상이랑 맞짱 뜨는 사람이었으니까.

한서우

(놀라며)

정말? 와우! 언벌리버블…인데? 근데… 지금은 왜 저렇게 됐는데? 너는 왜 작가를 그만 둔거야?

미진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독립언론사라는 게… 어차피 광고나 후원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더 스피릿’은…

한서우

(미진 쪽으로 바짝 의자를 당기며)

어어… ‘더 스피릿’은? 재정이 어려웠어? 광고나 후원이 없어서?

미진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 반대지. 채널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고, 방송 조회수도 엄청나서 광고가 끊이질 않았고,

취재 내용도 독보적이니까 후원금도 빵빵하게 들어 왔어. 회사 유보금이 한 20억? 30억? 그쯤

됐으니까. 직원들도 점점 많아져서 기자, 작가, 스텝 포함, 한 50명쯤 됐지, 아마?

한서우

(깜짝 놀라며)

히~ 뭐? 2~30 억? 50명? 뭐야? 그 정도면 ‘더 스피릿’은 독립언론사가 아니라 작은 방송국이잖아.

미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랬지… 유력언론사 기자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점점 영향력이 생기고, 제법

그럴듯한 시스템을 갖추고 했으니까… 물론 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한서우

(궁금증이 폭발한다)

그 방송? 그게 뭔데?

미진

(한서우를 빤히 본다)

…윤세은… ‘더 스피릿’이 윤세은의 과거를 파헤쳤거든.

서우와 미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다. 한서우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춘다.

한서우

(입을 가리며 속삭인다)

뭐? 영부인 윤세은? 윤세은의 과거를 파헤쳤다고?

미진

(단호한 표정으로)

윤세은이 얼굴과 이름을 바꾸고, 줄리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그 모든 것들을 ‘더 스피릿’이 낱낱이 취재하고, 파헤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

한서우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는다)

허~업! 뭐? 미친 거 아니야?

미진

(피식 웃으며)

맞아! 전대표님… 탐사취재에 미친 사람이야.

한서우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젓는다)

미진

(살짝 분노한 표정이 비친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게 한 순간에 무너졌어.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들이닥치고, 광고주들은 갑자기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나중엔, 우리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와서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가고 그랬어.

한서우

(마른 침을 삼킨다)

미진

(몸을 살짝 떨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암튼 난… 너무 무서웠어. 그 모든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다 버리고

도망쳤어.

미진은 말을 마치고, 마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텀블러만 꽉 쥔다. 한서우는 그런 미진의 모습을 보며, ‘전상준’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가 싸우고 있는 상대의 거대한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미진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Fade out)

### ****#**** S#14. ****독립언론사 '진실의 눈' 사무실 (밤)****

\*\*전상준(50대)\*\*이 홀로 소송 서류더미에 파묻혀 있다.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의 얼굴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려있다

그가 가늘게 신음하는 순간, 책상 위 휴대폰이 '띠링' 울린다. [발신: 계진우 변호인]이라는 글자.

그는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바닥으로 쓸어 떨어뜨린다.

지친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켠다.

정치인들의 시끄러운 공방, 연예인들의 가십... 의미 없는 소음들이 흘러간다. 그는 무표정하게 채널을 돌린다.

그때, 한 뉴스 채널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앵커 (TV-SOUND)**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맡았던 박진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전상준, 무의식적으로 채널을 돌리려던 손을 멈춘다.

그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된다. 화면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경례를 붙이는 박진형 대령의 사진이 떠 있다.

TV 속 박진형 대령의 모습 위로, 배신한 동료 계진우의 위선적인 얼굴, 자신을 비난하던 댓글들, 그리고 법원의 차가운 통지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앵커 (TV-SOUND)**

...박 대령은,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보고서가 국방부의 압력으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상준의 텅 비어 있던 눈.

마치 꺼져가던 장작더미에 누군가 기름을 부은 듯, 그의 눈에 아주 작지만, 서늘하고 예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는 홀린 듯, 책상 위 서류더미를 헤치고,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내 연다.

**(Fade out)**

## 제2부 대본 (전개 시퀀스)

### ****#**** S#15. 대학병원, 소아 병동 상담실 (낮)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좁은 상담실.

벽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알록달록한 그림이 붙어있지만, 그 색감마저 슬퍼 보인다.

박태수와 그의 아내가 의사 앞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아내는 불안한 듯, 자신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사(50대, 남)**는 CT 사진과 복잡한 차트들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의사

(안경을 고쳐 쓰며, 차분하게)

...정후, 그동안 여러 검사를 진행하느라 힘들었죠? 오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태수의 아내가 마른침을 삼킨다. 박태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박태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 해주십시오.

의사

(어렵게 말을 고르듯 뜸을 들인다)

... 병명은... '척수성 근위축증', SMA라고 합니다.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희귀 신경근육질환이에요.

‘척수성 근위축증'.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 박태수의 아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사와 남편을 번갈아 본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박태수 아내

(떨리는 목소리로)

... 그...그게... 그게 무슨... 우리 정후, 그냥 좀 약한 거 아니었나요? 잘 넘어지고... 감기 자주 걸리고....

의사

(안타까운 눈빛으로)

... 정후 어머님. 그게... 이 병의 초기 증상이에요. 현재 정후의 상태는... 진행이 꽤 된 편입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에, 아내의 어깨가 무너져 내린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린다. 박태수, 테이블 아래서 자신의 주먹을 꽉 쥔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묻는다.

박태수

(목이 메인 듯)

...치료는... 치료는 가능합니까, 선생님?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의사

(한숨을 쉬며)

…다행히, 최근에 좋은 신약이 나왔습니다. 진행을 멈추고,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잇기 어렵다는 듯)

...아직…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 비용이... 상당히… 음…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현재 이 약품이 급여 등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빠르면 8~9월, 늦어도 10월에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를 확정할 수 없고, 정후의 경우, 당장 투약이 필요해서…

박태수 아내

(고무되어)

...어... 얼마나 비싼데요, 선생님? 정후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련 해야죠.

의사

(머뭇거리며)

… 연간 투약 비용이 현재 약 4억원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금액.

그것은 평범한 형사인 박태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상담실을 가득 메운다.

박태수.

그는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그저 감싸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의 얼굴을 뒤덮는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그 어떤 울음보다 더 슬프게 일그러져 있다.

(FADE OUT)

### ****#**** S#16.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실 (낮)

**백도진**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리화'의 제보 내용과 관련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소파에는, 마약팀장 \*\*최철규(50대 후반, 경감)\*\*가 거의 드러눕다시피 앉아있다. 그는 하품을 하며 귀를 후비는 등, 상관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불량한 태도다.

백도진

(서류에서 눈을 떼고, 최철규를 보며)

...이상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철규

(느긋하게)

뭘요?

백도진

이 제보 건 말입니다.

최철규

(피식 웃으며)

과장님, 제가 이 바닥 짬밥이 30년입니다. 이런 제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들어와요. 약쟁이들, 약

떨어지면, 아무나 붙들고 늘어져서 약값 벌어보려는 거 하루 이틀입니까?

백도진

제보자가 ‘흑룡회’라는 마약 판매 조직까지 특정했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사안이 아닙니다.

최철규

(몸을 일으키며, 백도진을 빤히 본다)

아이고, 우리 백 과장님, 아직 열정이 넘치시네. 흑룡회? 용용 죽겠지~ 뭐 그런 건가?

(비아냥거리며)

과장님, 그런 뜬구름 잡는 소설에 우리 귀한 인력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팀, 생활 마약 사범

단속 실적도 못 채워서 서울청에서 매일같이 쪼인트 까이는 거 모르세요?

백도진

(표정 없이)

그러니까 더 해야죠. 생활 사범 잡아서 실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줄기를 쳐내야 진짜 마약이

근절되는 거 아닙니까!

최철규

(어이가 없다는 듯)

근절? 하하. 과장님, 순진하시긴. 뭔 생난리 부르스를 춰 보세요. 마약이 근절되는지… 저나 과장님이나, 월급 받고 정년까지 무사히 가는 게 만고 땡 아닙니까?

최철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한다. 백도진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꽂힌다.

백도진

최 팀장님!

최철규, 멈칫한다.

백도진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요즘, 용돈벌이가 쏠쏠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사리시는 겁니까?

최철규의 어깨가 순간 굳는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경계심이 떠오른다.

최철규

...무슨 말씀을…

백도진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일단, 이 제보 건, 마약팀에서 초동 수사 맡아주십시오. 지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튄다. 최철규는 잠시 백도진을 노려보다가, 이내 다시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온다.

최철규

아이고, 예, 예! 분부시라면야, 뭐! 까라면 까야죠.

(문고리를 잡으며, 혼잣말처럼)

...그러다 다 같이 죽는 수가 있는데.

최철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간다.

홀로 남은 백도진, 그의 얼굴에 깊은 불신과 분노가 스친다.

(FADE OUT)

### ****#**** S#17. <엄마손 국밥> 식당 내부 (낮)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산한 가게 안.

한서우가 구석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중, 가게 입구의 풍경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든다.

(S.E)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각 잡힌 군복 차림의 **\*\*한연우(31세)\*\***가 서 있다.

준수한 외모, 반듯한 자세. 그야말로 '엄친아'의 정석이다.

그는 가족들을 발견하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와 함께 우렁차게 경례를 하며 말한다.

한연우

충성! 소위 한연우, 휴가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 모습에 **박순애**와 **한정섭**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하지만 한서우는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그를 훑어본다. **박순애**는 아들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박순애

(연우의 팔을 만지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

한연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에이~ 어머니! 그건 쫌 아니지 말입니다. 살이 포동포동 쪘는데… 아들이 군대체질이지 말입니다.

한정섭

(주방 쪽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허이구! 이놈이 이거 넉살만 늘어가지고, 그래도 군복 입혀놓으니 사람 같네.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서우**, 이 광경이 아니꼽다는 듯 쳐다본다.

한서우

(퉁명스럽게)

어이, 한소위! 경례 똑바로 못하나? 어? 저거저거 군생활 짬밥 좀 먹었다고 군기가 빠져가지구!

한연우

(개구쟁이 남동생 모드로)

어이! 거기 백수 언니! 너님이 경례를 왜 받으시나? 그리고, 댁이 군기가 뭔지 알기는 하시고?

한서우

(신경질적으로)

야, 한연우! 네가 누나한테 맞은지가 좀 됐지?

박순애

(한서우를 째려보며)

얼씨구! 넌 왜 또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시비야?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함박 웃음을 띠며)

어이구,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다 해 놨어. 밥부터 먹을래?

한서우

(퉁명스럽게)

어휴, 나라 지키라고 혈세로 월급줬더니만 민가에 폐 끼치러 오셨네. 폐 끼치러 오셨어. 그리구 엄마는 어? 쟤 온다고 가게에 있는 전복이랑 갈비를 다 쓰면 어떡해? 오늘 저녁 장사는 뭘로 하라고?

한정섭

(어느새 한서우 옆에 와서 꿀밤을 콩 때리며)

네가 월급줬냐? 세금도 안 내면서 유세는? 그리구 장사를 네가 하냐? 네가 해?

한서우

(꿀밤 맞은 데를 비비며)

왜 때려? 아빠가 하도 때려서 나 머리 나빠지면 책임질거야?

한연우

(개구쟁이 남동생 모드로)

누가 들으면 나빠질 머리가 있는 줄…

한서우

(소리를 버럭 지르며)

야! 너 죽을래? 간만에 누가 몸풀게 하지 마라.

박순애

(한서우를 휙 노려보며)

아유, 너는 암튼… 몇 달 만에 집에 온, 하나 밖에 없는 동생한데 그게 할 소리야? 어릴 때는 지 동생 누가 건드릴까봐 벌벌 떨었으면서… 동생 건드린 놈들 가만 안 둔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니만, 아, 왜 다 커서는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달이!

한서우

(발끈하며)

내가 언제? 내가 언제!

(플래시백 - FLASHBACK)

15년 전, 동네 골목길.

초등학생 연우가 자기보다 덩치 큰 중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울먹이고 있다. 중학생 하나가 연우의 어깨를 밀치는 순간.

어린 서우 (V.O.)

야~~, 이 새끼들아! 걔 건드리면 니들은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교복 치마 차림의 중학생 서우가 책가방을 휘두르며 달려온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중학생 무리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동생 앞을 막아선다.

어린 서우

(눈을 부라리며)

너, 방금 내 동생 쳤냐?

어린 연우

(울먹이며)

누나… 저 형들이 막… 돈 내 놓으라고… 막 나 밀었어.

어린 서우

(동생을 살피며)

어디 다쳤어?

어린 연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고개를 젓는다)

중학생1

뭔데, 넌?

어린 서우

(연우의 손을 꽉 잡으며)

얘 누나다, 어쩔래?

중학생2

누나면 뭐? 네가 대신 맞게?

중학생 1, 2, 3이 함께 키득거리며 연우를 조롱한다.

중학생3

(주먹을 쥐고 위협하며)

이 쪼꼬만 게, 죽을라고 까불고 있어?

어린 연우는 벌벌 떨며 누나 뒤로 숨고, 어린 서우는 입김으로 앞머리를 훅 불고 눈을 치켜뜬다.

어린 서우

(연우에게 복화술로 속삭이며)

연우야, 한연우! 울지 말고 잘 들어! 누나가 신호하면 집 쪽으로 뛰는 거야.

어린 연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고개를 끄덕인다)

중학생1

(낄낄거리며)

니들 뭐 하냐? 작전 짜냐?

어린 서우

(헛웃음을 웃으며)

하… 나 참! 니들 같은 찌끄레기들 상대하는데 작전이 왜 필요하냐?

중학생3

(연우를 위협하며)

이게 진짜! 한 대 맞고 질질 짤려고. 작작 까불어라.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아?

어린 서우

(두려움을 이기려 주먹을 꼭 쥐고)

누가 누굴 봐 줘? 니들이 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니들 충암중이지? 나 한성여중이야. 여기서

조용히 돌아가면 내가 니들 학교까지 찾아가진 않을 테니까 봐 줄 때 그냥 가라.

중학생2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서우에게 다가선다)

그 때, 어린 연우가 중학생2의 낭심을 힘차게 걷어찬다. 중학생 2가 고꾸라지자, 중학생 1,3이 중학생2를 일으키려 몸을 숙인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린 서우는 중학생1의 머리를 책가방으로 힘껏 내리치고, 팔꿈치로 중학생3의 코를 가격한다.

어린 서우

(연우의 손을 잡고)

연우야, 뛰어!

어린 서우는 동생 연우의 손을 잡고, 집 쪽으로 전력 질주한다. 뒤에서 중학생들이 소리지르며 따라오고, 서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린다. 어린 연우는 동경의 눈빛으로 누나를 보며 달린다. 달리는 두 남매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다시 현재)

박순애는 아들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정섭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한서우는 여전히 투덜거리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다. 화기애애한 가족의 풍경.

한연우

(개구쟁이 남동생 모드로)

나는 엄마, 한서우가 조폭될 줄 알았다니까? ㅎㅎㅎㅎ

한서우

(발끈하며)

한서우? 조폭?

그때, 가게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온다.

**앵커 차수정 (TV-SOUND)**

다음 소식입니다. 김강호 대통령은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차승권 일병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멎고, 가족들의 시선이 TV로 향한다.

(카메라) TV 뉴스 화면을 비춘다.

[화면] 김강호 대통령의 모습 + 자막 “고 차승권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

(S.E.) 앵커 차수정의 목소리   
김 대통령은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S.E.) 앵커 차수정의 목소리\_백그라운드로 깔리며…

(카메라) 다시 가족의 모습을 비춘다.

정부는 또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며, 고 채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애

(TV 뉴스에 눈을 고정한 채)

어머, 맘 아파서 어쩌니? 아이구… 저 어린 나이에 군대가서 저런 사고를… 쯧쯧, 아이구, 아이구,

속상해.

(아들을 휙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우야. 니네 부대는, 니네 부대도 저런, 저런 위험한 데 막 지원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정섭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연우를 보며)

야, 연우야. 니 엄마는 군대가 무슨 고등학교 기숙사 인 줄 안다.

(박순애에게 핀잔을 주며)

여보세요, 당신 아드님은 육군이야,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라고. 저, 저, 뉴스는 해병대 얘기고.

박순애

(어리둥절하며)

뭐, 그러면, 그게 많이 다른 거야?

(다시 TV로 눈을 돌리며 마음 아파하며)

그나저나… 저 군인 엄마는 어떻게 사니? 군대간 아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으니…

(눈물을 움친다)

한정섭

(박순애를 보며)

뭘 어떻게 살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산 사람은 사는 거지.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고, 부모는 먼저

간 자식 가슴에 묻고 사는 거지…

한서우와 한연우는 서로를 보며 곤란하다는 듯한 눈빛을 교환한다.

한서우

(분위기를 바꿔 보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여군이나 할 걸 그랬나… 싶다. 여군 딸래미였으면 차별대우도 안

받았을텐데…. 아쉽다… 아쉬워~

한연우

(장난스럽게)

이보세요! 할머니는 군대 청소부로도 못 들어오십니다.

한서우

… 할머니? 이게 진짜!

한서우가 연우의 등짝을 때리려 달려들고, 연우는 능청스럽게 피한다. 다시 티격태격하는 두 남매.

그 모습을 보며, 한정섭과 박순애는 씁쓸하지만, 못 말린다는 듯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 ****#**** S#18. 유흥가 뒷골목, 허름한 포장마차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낡은 비닐 천막을 씌운 포장마차 구석 자리. 백도진과 정보원 \*\*독사(40대)\*\*가 마주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나는 어묵탕과 소주병이 놓여있다.

독사는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며, 소주잔을 단숨에 털어 넣는다.

독사

(짜증스럽게)

아이, 형님. 이런 데서 보자고 하면 어떡해요. 여긴 아는 눈이 너무 많다니까.

백도진

(어묵 꼬치를 씹으며, 무심하게)

왜, 내가 챙피해? 그런거야?

독사

(호소하듯이)

아니… 나도 프라이비씨가 있고, 이 바닥에서 네임 벨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 쪽 팔린 건 별개고…

백도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넌 이제 내가 만만하구나?

독사

(백도진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애교 떨며)

에이~ 우리 백과장님… 또 왜 이러실까? 화났져?

백도진

(독사를 보며 위협적으로 소주 잔을 들어 들이킨다)

선 넘지 말고… 이 얼굴 아는 애들 좀 찾아와 봐.

백도진, 주머니에서 **최성욱**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진다. 독사, 사진을 흘깃 보더니 피식 웃는다.

독사

(손을 휘저으며)

에이, 이쪽은 끕이 다르다고 말했을텐데! 이런 도련님들은 우리 같은 '땅개'들하고 안 논다니까. 약에도 레베루가 있다고요… 이쪽은 최상급 품질, 아시지? ‘황술’! 유통 경로가 아예 달라 버려.

백도진

(독사의 어깨를 세게 툭툭치며)

...그르니까, 독사야… 그 경로, 그걸 네가 알아오면 되겠지?

독사

(항의하듯이)

아니, 형님!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긴 내가 머리를 들이밀 수가 없다니까?

걔들은 최~고가의 얼음만 취급하거든, 그리고, 검출도 안되는 신상쪽으로다가... 아~주 은밀한 곳에서,

프라이벌하게…

(자신이 말한 단어가 맞는지 잠깐 생각하는 듯 갸우뚱한다)

와인처럼 즐긴다고요. '이번에 들어온 신상은 산미가 어쩌고저쩌고...' 이 지랄하면서 약쇼핑을 하는 부류다… 이 말씀입니다. 하선들이 취급하는 '저가뽕'이랑은 차원이 달라. 왜? 돈이 많으니까. 아~주 많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노 프로그램이라 이거지!

백도진

(진지하게)

...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잡은 약팔이들. 걔들이 푸는 물건이랑, 이 도련님이 드시는 물건이랑...

루트가 겹쳐.

백도진의 말에, 독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한다.

독사

(과장되게 놀라며)

...에~에? 그럴 리가. 걔들은 그냥 지역구 급으로 던지기 하는 놈들인데? 불가능해. 임파씨벌!! 루트든

뭐든 엮일 수가 없을텐데…

백도진

(독사의 눈을 꿰뚫듯 보며)

근데, 엮였어... 독사야! 너 내가 리바이벌 싫어하는 거 알지… 프라이벌, 임파씨벌, 떠벌떠벌하지 말고…

레이다 좀 돌려봐. 네 정보가 틀렸거나, 아니면 네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

백도진의 집요한 시선. 독사는 불안한 듯 소주를 한 잔 더 따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춘다.

독사

...근데... 요즘 이 바닥,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말들이 많아요.

백도진

뭐가 이상한데?

독사

정보가... 너무 빨리 돈다는 거지. 내가 뭘 좀 알아보려고 하면, 벌써 다들 숨고 읎어, 개미새끼 한 마리 읎다니까? 진짜... 꼭... 누군가 우리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할까?

백도진

(정곡을 찌르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먼저 정보를 준다는 거야?

독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백도진의 귀에 대고 거의 속삭이듯 말한다.

독사

...새는 구멍이 있다는 얘기지. 형님네... 그 회사 안에.

백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독사

돈 받고 수사 정보 넘기는 '짭새'가 있다는 소문이 쫘악... 돌드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물기도 전에, 놈들이 싹 다 증거 없애고 튀는 거 아니야. 이 도련님처럼.

독사의 마지막 말.

백도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한다. 검찰의 외압,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 그는 이중의 벽에 갇혔다.

백도진, 말없이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백도진

그 구멍도, 같이 좀 알아와 봐. 그리구, 너 영어 안 쓰면 안되냐?

독사, 봉투를 보고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봉투를 자신의 품속으로 쓸어 담는다.

백도진, 자리에서 일어나 비 내리는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진다.

홀로 남은 독사, 불안한 눈빛으로 소주잔만 만지작거리다 품속에서 봉투를 조심스레 꺼낸다.

주위를 살피며 봉투 안을 확인하는 독사... 그의 얼굴이 굳는다.

독사

(어이없는 웃음을 픽 터뜨리며)

아~ 나… 진짜, 이 형님! 존나 큰 웃음을 주시네. 하하하하. 아… 이 빽도 같은 새끼, 베리 뻐니한 놈인 걸 미처 몰랐네? 하하하하.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며 큰 소리로 웃는다. 박수를 치고 고개를 젓다가 엄지와 검지로 미간을 잡는다)

(카메라) 독사의 모습을 비추다가 테이블 위 봉투 쪽으로 글라이딩한다. 줌인. 봉투에서 삐져 나온 게임용 머니 상품권. 5만원 지폐와 흡사한 모양. 신사임당 대신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다.

(FADE OUT)

### ****#**** S#19. 형사2과 마약팀 사무실 (낮)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함이 감도는 마약팀 사무실.

강력팀의 분주함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한가롭다.

그때, 탕비실 쪽 구석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백도진이 그쪽으로 향하자, 마약팀 형사 서너 명이 옹기종기 모여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다. 화이트보드에는 점심 내기 사다리 게임이 한창이다.

마약팀 형사 1

아싸! 걸렸다, 김 형사! 오늘 네가 커피까지 다 쏘는 거다!

마약팀 형사 2

아, 씨... 이놈의 똥손 진짜...

한가롭게 떠드는 그들의 모습.

백도진이 그들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백도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재미있어?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

형사들, 화들짝 놀라며 돌아선다. 사다리를 그리던 형사는 보드마카를 떨어뜨린다.

그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백도진의 눈치만 본다.

백도진

최철규 팀장님은 어디 가셨나?

마약팀 형사 1

(더듬으며)

아... 팀장님은... 지금 외근... 나가셨습니다.

백도진, 대답 없이 사무실 벽에 걸린 외근 현황판을 본다. 최철규의 이름 옆은 깨끗하다. 보고된 외근은 없다.

백도진

(다시 형사들을 보며)

내가 어제 넘긴 제보 건. 초동 수사 진행 상황 좀 확인하려고 왔는데.

마약팀 형사 2

...예? 제보... 라면 어떤…?

백도진

(별일 아니라는 듯)

음… 최 팀장님이 아직 공유를 안 하셨나보네.

마약팀 형사 1

네… 저희는... 아직, 사건 관련 지시사항이 없...

백도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간다. 마약팀 형사2가 백도진의 표정을 보고, 눈짓으로 신호하자, 형사1이 말을 멈춘다.

백도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형사들을 쭉 둘러본다)

음… 최 팀장님이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계시나보네… 일들 봐. 팀장님 복귀하시면 나 왔었다고 하고.

백도진은 돌아서려다 멈칫한다.

그의 시선이, 텅 빈 최철규 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고급 골프채 헤드커버에 꽂힌다. 신상 한정판 모델이다. 평범한 경감 월급으로는 사기 힘든 물건.

그리고 그 옆, 다이어리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유흥업소 VIP 멤버십 카드.

백도진이 천천히 그 책상으로 다가간다. 형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백도진이 멤버십 카드를 집어 드는 순간, 카드 밑에 깔려있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보인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감사합니다. 약소해요.]

백도진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백도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의 눈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이 이글거린다.

그는 멤버십 카드와 메모지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아무 말없이, 얼어붙은 팀원들을 지나쳐 사무실을 나간다.

사무실을 나온 백도진,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누른다.

백도진

(수화기에 대고)

강력7팀, 전원 대기시켜.

(FADE OUT)

### ****#**** S#20. 몽타주 - 탐문과 잠복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아래의 장면들이 교차된다.)

(A)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 강력7팀 사무실 (밤)

사무실은 전쟁터다. 백도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리화'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사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그의 앞에는, 별다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강력7팀 팀원들과 김민준이 모여 있다.

백도진

(팀원들을 둘러보며)

지금부터 이 마약 제보건, 강력7팀이 맡는다. 마약팀은 잊어. 제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용하고 빠르게 수사하자. 방 경사, 동 경장이 잠복조, 기경장, 신유빈이 탐문조. 김경위는 CCTV

확보와 분석을 맡고, 수사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나한테 직보해. 나는 강력7팀이 아직 제대로 된

실적이 없는 게 수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어서라고 본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팀원들, 말없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B) 차 안 (연속되는 며칠간의 낮과 밤)

비좁은 차 안. 방성준 경사와 동민석 경장(일명 '동방' 콤비)가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며 잠복 중이다. 시간이 흐르며, 차 안에는 빈 커피 캔과 쓰레기만 쌓여간다.

동민석 경장

(하품하며)

아... 방경사님, 저 놈들한테 정보 샌 거 아니예요? 이렇게까지 안 움직일 수 가 있냐구요.

방성준 경사

(눈은 건물 입구에 고정한 채)

민석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구, 잠이나 깨. 저런 놈들일수록, 방심하는 순간에 움직이니까.

(C) 영등포 일대 유흥가 (밤)

신유빈 순경과 기승호 경장이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며 탐문 수사를 벌인다.

그들은 거친 욕설을 내뱉는 조폭 출신 정보원부터, 겁에 질린 유흥업소 종업원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며 마약 판매 조직의 실체에 대한 조각들을 맞춰나간다.

(D) 영등포경찰서, CCTV 분석실(밤새도록)

수많은 모니터 불빛이 김민준의 지친 얼굴을 비춘다. 그는 제보받은 대포폰 번호 하나를 단서로, 수십 개의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SNS 계정들을 미친 듯이 교차 분석한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는다.

### ****#**** S#21.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다음 날 새벽)

사무실은 차갑게 식은 믹스커피 향과 마르지 않은 잉크 냄새로 가득하다.

밤샘 작업으로 거의 좀비가 된 김민준.

그는 마침내, 의미 없어 보이던 데이터들 사이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한다.

그가 모니터 화면을 분할한다.

[화면 1]: 특정 대포폰의 통화 기록.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만 짧은 통화가 집중되어 있다.

[화면 2]: 그 시간대의 기지국 위치. 영등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반경 500미터다.

[화면 3]: 해당 구역의 CCTV 영상. 금요일 밤 11시 전후로, 같은 인물들이 건물의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된다.

[화면 4]: 그 인물 중 하나의 SNS. 비공개 계정이지만, 프로필 사진이 흑룡(黑龍) 이다.

정보의 조각들이 가리키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

김민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한다.

그는 마침내, 다음 거래가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낸다.

김민준

(혼잣말로)

...잡았다, 요놈들.

그는 즉시, 백도진에게 전화를 건다.

김민준

(수화기에 대고, 흥분을 감추며)

과장님, 김민준입니다.

(결연한 목소리로)

...오늘 밤 11시. 영등포 대흥상가 A동, 지하 주차장입니다.

(FADE OUT)

## 제2부 대본 (갈등 시퀀스)

### ****#**** S#22. 전상준의 지하 사무실 (밤)

어둠과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참담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하 사무실.

\*\*전상준(40대)\*\*이 홀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집중력이 번뜩인다.

화면 속에서는, 며칠 전 라이브로 진행되었던 '뉴 스피릿'의 방송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자신을 배신한 옛 동료 계진우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떠들고 있다.

계진우 (화면 속 V.O.)

...이것이 바로 권력의 민낯입니다! 저희 '뉴 스피릿'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 녹취 하나로...

전상준, 영상을 잠시 멈춘다. 그는 화면 속 계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본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계진우가 방송에서 '단독 입수'라고 주장했던 바이올리니스트의 녹취 파일과, 과거 자신이 취재했던 [바이올리니스트 A씨 스토킹 사건] 파일이 나란히 놓여있다.

전상준의 시선이, 자신이 직접 손으로 썼던 메모로 향한다.

[제보자: A씨의 전 남자친구. 신빙성 낮음. 팩트체크 필수. 녹취 내용 사실 확인 불가.]

전상준

(혼잣말로)

...왜, 왜 이걸…

그는 다시 영상을 재생한다. 화면 아래로, 당시 폭발적이었던 실시간 채팅과, 그 방송을 인용해 쏟아져 나온 수많은 언론 기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모든 것이 '학동 룸살롱 술자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전상준

(노트북을 덮으며)

...아니야. 이건 계진우답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인다.

전상준

(스스로에게 질문하듯)

계진우는 멍청한 놈이 아니야. 이딴 가짜 정보가, 나중에 얼마나 큰 역풍을 맞을지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인데... 왜? 대체 왜 이걸 터트린 거지?

전상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학동 술자리' 의혹이 터진 시점. 그 시점에 가장 큰 위기에 몰려있던 인물. 그리고 이 가짜뉴스로 인해, 대중의 여론이 황덕한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진보언론을 자처한 ‘뉴 스피릿’이 가짜뉴스를 방송한 것에 대해 진보진영의 모든 언론들이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 등

그의 시선이, 사무실 벽에 붙여놓은 거대한 사건 관계도에 꽂힌다.

그 관계도의 중심에는, [법무부 장관 황덕한]과 [영부인 윤세은], [대통령 김강호]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전상준

...설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노트북을 연다. 그는 '학동 술자리' 뉴스와 '법무부 장관 황덕한' 관련 뉴스들의 날짜와 여론의 반응을 미친 듯이 비교 분석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거대한 가짜뉴스가, 또 다른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깨달은 순간, 그의 얼굴에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전율이 흐른다.

(FADE OUT)

### ****#**** S#23. <엄마손 국밥> 식당 내부(밤)

백도진이 독사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박순애가 백도진에게 박태수 아들의 수술에 대해 언급하고, 독사가 박태수의 상황을 알게 된다.

### ****#**** S#24. 영등포경찰서 브리핑 룸

검거 작전 직전, 백도진이 최종 브리핑을 한다. 강력7팀원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비장함과 신뢰가 서려있다.

### ****#**** S#25. 검거 작전 개시

8월 11일, 마침내 마약 유통 현장을 급습한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중국 조직원 2명을 검거한다.

현장에서 필로폰 21g을 압수하는 첫 성과를 올린다.

### ****#**** S#26. 영등포경찰서 취조실

백도진이 검거한 조직원을 직접 심문한다. 그의 집요한 심리전 끝에, 조직원은 이 마약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것이며, 중국조직 중간책에 대한 정보를 실토한다.

### ****#**** S#27. 한서우의 방

한서우는 전상준이라는 인물에 매료되어, 그의 과거와 '진실의 눈'에 대해 조사하며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녀는 작가 아카데미에서 그를 비난하던 동료들의 SNS를 파고들기 시작한다.

### ****#**** S#28. 대학병원, 아들 병실 앞

박태수가 아들 정후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인다. 그의 휴대폰으로 '서울청 감찰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 ****#**** S#29. 선녀보살 신당

남산옥이 평상복 차림으로 한 점집(선녀보살 집)에서 여자 무속인에게 구영학의 사진을 내밀며 "이 자와 일을 도모하면 성공하겠는가?"라고 묻는다.

### ****#**** S#30. 영등포경찰서 서장실

김창석 서장은 백도진의 첫 성과에 매우 기뻐하며, 그를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 제2부 대본 (절정 시퀀스)

### ****#**** S#31.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실

백도진이 화이트보드에 마약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려 조직도를 그린다. 그는 이제 막 거대한 싸움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는 비장한 표정을 짓는다.

### ****#**** S#32. 한서우의 방

한서우가 전상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다.

### ****#**** S#33. 전상준의 사무실

전상준은 한서우의 메일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봐 주는 존재에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 ****#**** S#34. 최철규의 밀고

최철규는 백도진의 성과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어딘가(서울청 혹은 검찰)에 전화를 걸어 "백도진이 도를 넘고 있다"는 식으로 그를 음해한다.

### ****#**** S#35. 대통령실

강석훈은 '영등포서'의 마약 수사 실적 보고를 받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 ****#**** S#36. 서장실

### ****#**** S#37. 형사2과장실

백도진이 팀원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 김창석에게서 전화가 온다. "백 과장, 잠깐 내 방으로."

## 제2부 대본 (엔딩 시퀀스)

### ****#**** S#38.

### ****#**** S#39.

### ****#**** S#40. 엔딩 컷